“커피 한잔도 부담”… 고환율에 커피가격 줄인상

원두 국제시세·물류비 상승에 저가·믹스상품도 올라
가성비 소비자들 늘어…중고 거래·대체 음료 등 찾아

#1 평소 출근길 회사 근처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는 30대 직장인 윤씨는 최근 회사에서 커피를 타 마시고 있다. 점심값 부담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커피값까지 올라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졌기 때문이다. 윤씨는 “전에는 회사 내 비치된 스틱 커피는 쳐다보지 않았다. 요즘은 회사에서 컵에 스틱커피를 타 얼음을 넣어 마시면서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 드립커피를 즐겨 마시는 50대 정씨는 원두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 아프리카산 원두 가격이 전쟁과 물류 불안 영향으로 두 배 가까이 올라서다. 때문에 최근에는 그나마 저렴한 스틱커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씨는 “점심값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즐겨 찾던 원두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예전처럼 쉽게 구매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원두 가격 급등과 고환율이 겹친 이른바 ‘커피플레이션’(커피+인플레이션)’이 소비자를 울상 짓게 하고 있다.

커피 원두 국제 시세 급등으로 커피 가격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격 인상 부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4년 t당 평균 5158달러였던 국제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지난해 t당 평균 8117달러로 약 57.4%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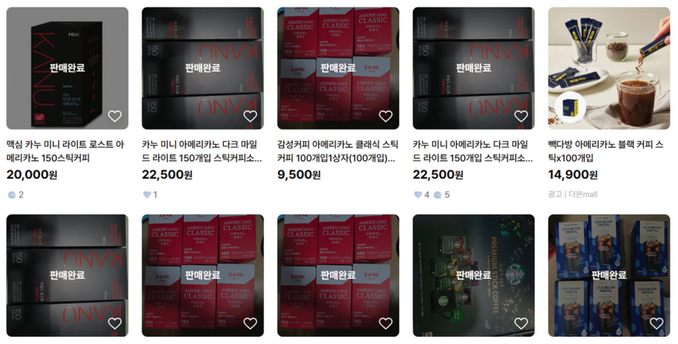
이상기후와 주요 생산국 작황 부진, 물류비 상승 등이 겹치며 원두 가격이 크게 뛰었다.

여기에 최근 1500원대의 원/달러 고환율로 커피 원두 수입가격은 폭등한 상태다.

다만 세계 주요 원두 생산국인 브라질과 베트남의 기후 여건이 개선되면서 공급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기준 국제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t당 평균 6598달러로 지난해 평균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앞서 국제 원두 가격이 지난해 크게 오른 데다 우유와 시럽, 컵, 빨대 등 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업체들이 실제 쓰는 원두에는 과거 계약 물량과 환율, 물류비 부담이 반영되면서 가격 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카페에서 커피를 사먹는 부담이 커지자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믹스커피와 인스턴트 커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원두 가격 급등과 고환율이 겹친 이른바 ‘커피플레이션’(커피+인플레이션)’이 소비자를 울상 짓게 하고 있다. 때문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맥심·카누 등 인기 제품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또 서민들의 대표 기호식품인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와 스틱커피 제품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찾던 상품군마저 가격을 올라 커피 한 잔의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맥심·카누 등 인기 제품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 이날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커피믹스 1개당 120원 꼴’, ‘대용량 박스 소분 판매’ 등의 글이 다수 게시돼 있다.

관련 게시글 중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할인 판매하거나 행사 때 대량 구매한 제품을 되파는 사례도 일부 눈에 띄었다.

이 같은 상황 속 소비자들은 믹스커피 대용량 제품이나 저렴한 PB(자체브랜드) 커피를 찾거나 보리차·티음료·에너지음료 등 대체 음료를 찾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고환율 등으로 원두 값이 상승함에 따라 커피 값 부담이 커졌을 것이다. 소비자들이 카페 이용 횟수를 줄이고 가성비 제품을 찾는 흐름은 당연하다”며 “믹스커피나 인스턴트 커피 역시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중고거래까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SKT·엔비디아, AI 인프라 구축
‘풀스택 AI 클라우드’ 협력 추진

SK텔레콤이 아시아 대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업자를 목표로 엔비디아와 협력해 AI 인프라를 구축한다.

SKT는 엔비디아 DSX 플랫폼을 기반으로 칩부터 데이터센터 운영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AI 클라우드’ 협력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AI 작업에 특화된 데이터센터인 ‘AI 팩토리’를 기가와트급 스케일을 목표로 확장할 예정이다. SKT는 엔비디아의 AI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고성능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파트너 생태계 프로그램인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 프로그램에 합류한다.

지난 1일 대만에서 열린 회동에서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양사가 구상해 온 AI 인프라 로드맵을 검토하고 그룹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SKT는 엔비디아와 함께 아시아 최대 AI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SKT는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AI 인프라와 사업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AI 클라우드 사업자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지난 7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치킨집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및 양사 경영진이 저녁식사를 하며 환담을 나눴다. 엔빕뉴스

정용진, 이마트·신세계프라퍼티 맡는다
13년 만에 복귀…스타벅스코리아 신임 대표에 신동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13년 만에 그룹 핵심 계열사인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로 복귀한다.

‘5·18 탱크데이’ 사태를 비롯해 정 회장이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하면서도 등기이사를 맡지 않아 책임은 피하고 있다는 비판에 완전한 책임경영을 실현하겠다는 풀이로 해석된다.

8일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회장이 신세계프라퍼티의 각자대표로 내정됐다고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곧 이사회를 열어 정 회장을 등기이사로 추천하고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이후 다시 이사회를 열어 정 회장을 각자대표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마트의 경우 올해 정기임원 인사 때 정 회장을 각자대표로 내정한 후 내년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2013년 3월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이사직을 사임 후 13년 만에 복귀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회사 경영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라는 시장의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의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벅스 코리아는 신동우 신세계프라퍼티 지원본부장을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

콘진원,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17일부터 ‘산업 포럼’ 개최…4대 핵심 의제 논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광화문 CKL 스테이지에서 ‘2026 콘텐츠 산업 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를 감동시키고 경제를 풍요롭게 하는 K-콘텐츠’를 주제로 열린다. 포럼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4대 핵심 의제인 글로벌 유통, 지식재산(IP), 금융, 기술을 중심으로 정책, 게임, 방송, 음악, 패션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반의 정책적·산업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첫날 개회 세션에서는 핵심 주제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 패션과 뷰티 산업을 세계에 알린 전문가들의 초청 강연이 진행된다.

이상봉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장은 ‘패션 크리에이티브 산업과 K’를 주제로 K-패션의 현황과 글로벌 진출 전략을 살펴보고, 한국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송호준 아모레퍼시픽재단 사무국장은 ‘우리만의 아름다움으로 글로벌 문화를 만드는 K-뷰티’라는 주제로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향을 공유한다.

개막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포럼은 3일간 총 4개 전문 세션으로 운영된다. 각 프로그램은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되며, 콘텐츠산업의 미래 성장 전략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현석 콘진원 원장직무대행은 “K-콘텐츠는 전 세계인의 감동을 자아내는 문화적 자산이자 우리 경제를 풍요롭게 하는 전략 산업이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글로벌 유통 다각화, 공간으로의 지식재산(IP) 확장, 지속가능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 그리고 인공지능(AI) 기반의 혁신 전략이 향후 정책 수립과 산업 종사자들의 사업 전략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금융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광주문화신협

평생 어부바 신협

자산 규모 1조 6천 5백억원
창립 이후 33년 연속 흑자경영
당기순이익 10% 이상 지역사회 환원
자산 1조 6,562억
26.03.기준

광주문화신협
복지장학재단 운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희망을 전하고,
지역의 미래 인재를 발굴·육성합니다.
고교2학년 ~ 대학졸업까지
6년간 장학금 지원!
15년간 총 누적 장학생 235명
총 누적 지급액 2,430백만원
26.03.기준

광주문화신협 소상공인 지원
어부바플랜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광주문화신협 결연업체 혜택
☑ 업장 환경 개선
☑ 필요물품 지원
☑ 금융상담 및 대출
2022년~현재 결연업체 673곳

광주문화신협 & 광주북구청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
광주광역시 시청과도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완료
보탬e카드
광주문화신협은 2월 24일 광주광역시 북구청 상황실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와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보조사업자의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보조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본점 | 여신사업부 | 문흥지점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림지점 | 동광주지점 | 각화지점
대표번호 1644-7990